

열차사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열차운행 재개를 위한 현장감식체계 개선방안

김홍곤*, 김구영*, 배화란*, 정의석*, 정석호**, 권혁빈**[†]

열차사상사고 발생 시 사고열차의 운행 재개까지 평균 70분이 소요되는데 열차운행이 빈번한 수도권 전동열차구간의 경우 후속열차의 연쇄지연으로 승객혼란이 가중되고 열차의 정상운행 회복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다.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경찰과학수사대 소속 감식반의 현장 감식 완료 후 열차운행이 재개됨으로 감식반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, 현장경찰의 요청에 의해 출동이 이뤄지는 관계로 경찰도착 후 감식반 도착까지 평균 25분의 추가시간이 소요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신속한 열차운행 재개를 위하여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철도사상사고 발생 시 감식반의 출동 메뉴얼 수립과, 5G 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감식시스템의 도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.

[†] 교신저자: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통시스템공학과(hbkwon@ut.ac.kr)

* 한국철도공사

**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통시스템공학과